



미 증시, 기대인플레이 하락에 투자 심리 개선되며 상승

미국 증시 리뷰

8 일(월) 미국 증시는 CPI 발표 경계심리에도 지난주 낙폭과대 인식, 기대인플레이 하락 및 미국채 10 년물 금리 하락 전환, 엔비디아발 호재 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 (다우 +0.58%, S&P500 +1.41%, 나스닥 +2.2%)

뉴욕 연은이 발표한 12 월 1 년 기대인플레이션은 3%(전월 3.4%)로 발표, 2021 년 1 월 이후 거의 3 년 만에 최저치 기록. 3 년 기대인플레이션은 전월 3.0%에서 2.6%로, 5 년 기대인플레이션은 전월 2.7%에서 2.5%로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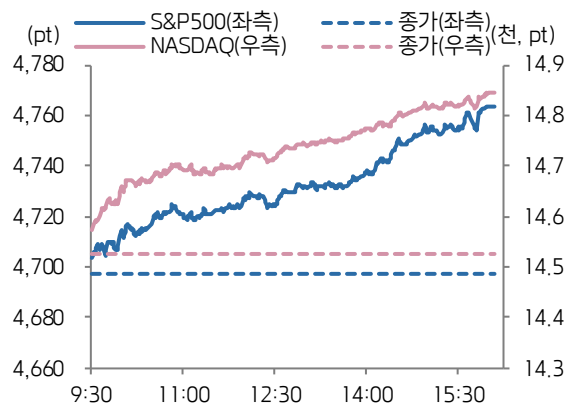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려는 연준의 이중 책무가 아직 충돌하지 않는다고 언급. 3 분기 초에 금리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와 함께 "고용시장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를 더 면밀히 관찰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미 시작된 2024 회계연도(2023 년 10 월~2024 년 9 월)에 쓸 연방정부 예산 지출 규모에 합의. 12 개 세출 예산법안의 상한액을 1 조 5 천 900 억 달러로 설정. 8 천 860 억 달러의 국방 부문 지출과 7 천 40 억 달러 규모의 비국방 부문 지출로 구성. 지난 9 월과 11 월 두 차례에 걸쳐 임시 예산안에 각각 합의, 2 개 단계(1 월 20 일과 2 월 2 일)로 만기를 설정한 현 임시예산안의 1 단계 만기를 10 여 일 앞두고 합의에 이르며 섯다운 우려 완화.

업종별로 에너지(-1.2%) 만이 하락한 가운데, IT(+2.7%), 경기소비재(+1.8%), 통신(+1.7%)의 상승폭이 가장 컸음. 엔비디아(6.43%)는 중국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미국의 수출제한 규정에 맞춘 중국용 AI 반도체를 올해 2 분기부터 양산할 계획을 발표한 이후 장중 사상최고치 경신. 애플(2.42%), 알파벳(2.29%), 아마존(2.66%), 메타(1.91%) 등 시총 상위 기술주 모두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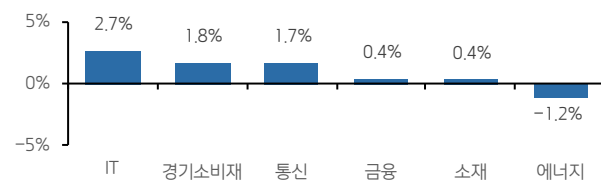
보잉(-8.08%)은 알래스카항공 보잉 737 맥스 9 기종이 비행 중 출구 패널이 날아가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주가는 급락, 보잉의 부품 공급사인 스피릿에어로 시스템(-10.8%)도 동반 하락. 미 연방항공청(FAA)는 즉시 사고가 난 737 맥스 9 항공기 임시 운행 중단 명령.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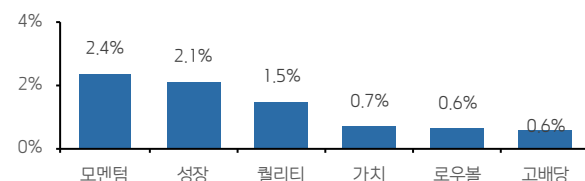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567.82	-0.4%	USD/KRW	1,315.72	-0.01%
코스피 200	345.58	-0.47%	달러 지수	102.29	-0.12%
코스닥	879.34	+0.11%	EUR/USD	1.10	+0.02%
코스닥 150	1,389.98	-0.67%	USD/CNH	7.16	+0%
S&P500	4,763.54	+1.41%	USD/JPY	144.24	+0.01%
NASDAQ	14,843.77	+2.2%	채권시장		
다우	37,683.01	+0.58%	국고채 3년	3.290	+1bp
VIX	13.08	-2.02%	국고채 10년	3.355	+1.8bp
러셀 2000	1,989.01	+1.94%	미국 국채 2년	4.375	-0.6bp
필라. 반도체	4,062.48	+3.28%	미국 국채 10년	4.031	-1.5bp
다우 운송	15,645.96	+0.89%	미국 국채 30년	4.193	-0.9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485.48	+0.49%	WTI	70.93	-3.9%
MSCI 전세계 지수	715.40	+0.16%	브렌트유	76.35	-3.06%
MSCI DM 지수	3,120.55	+0.21%	금	2034.1	-0.77%
MSCI EM 지수	1,002.08	-0.22%	은	23.31	-0.02%
MSCI 한국 ETF	63.21	+0.52%	구리	382.35	+0.46%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52%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28%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1.41%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09.91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6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기대인플레이 하락 등으로 인한 미국 증시 강세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2. 엔비디아 신고가 경신이 국내 AI 관련주들의 수급 환경을 개선시킬 가능성 3.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 후 반도체 관련주 주가 변화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코스피, 나스닥, S&P500 등 주요지수는 지난 12 월 말까지 9 주 연속 상승세라는 기염을 토했으나, 10 주 연속 상승세는 끝내 달성하지 못했던 상황(but 코스닥은 10 주 연속 상승했으며 11 주째 상승에 도전 중). 전일 미국 증시가 엔비디아발 호재 등으로 큰 폭의 반등을 시현하긴 했어도 현재 시장참여자들은 지난해 연말과 같은 랠리가 이른 시일 내에 재개될 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높아진 모습.

기술적으로도 코스피, 나스닥, S&P500 모두 단기 추세선인 20 일선 부근에 위치해 있는 등 단기적인 분기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임. 일단 뉴욕 연은의 1 년 기대인플레이션(3.0%, 전월 3.4%)로 '21 년 1 월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점이나, 사우디의 원유판매가격(OSP) 2 달러 인하에 따른 WTI 유가(-3.8%)가 급락했다는 점은 반길 만한 일. 이처럼 인플레이션 호재가 등장했다는 점은 매크로 상 단기 분기점을 무난하게 돌파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만드는 요인.

물론 11 일 예정된 CPI 결과까지는 지켜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번 4 분기 실적시즌을 통해서 이루어질 예정인 올해 이익 성장 기대감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 일례로, 1 월 8 일 발표된 블룸버그 서베이에서는 이번 4 분기 실적시즌을 치르면서 S&P500 지수가 “상승할 것이라 응답한 비율(52%)”과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48%)”이 대등한 것으로 집계. 이는 현재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올해 S&P500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지나치게 높다고 응답한 비율(50%)”과 “지나치게 낮다고 응답한 비율(10%)” 혹은 “합당하다고 응답한 비율(40%)”도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는 데서 기인. 즉, 이익 기대치를 둘러싸고 시장 참여자들 간에 서로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

코스피도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작년에 비해 50% 증가할 것으로 형성된 컨센서스가 과도하기에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 결국 한국과 미국 모두 올해는 작년에 비해 이익 성장이 더 나을 것이라는 데에 이견은 없겠지만, 그 이익 성장의 강도를 놓고서 단기적으로 불투명성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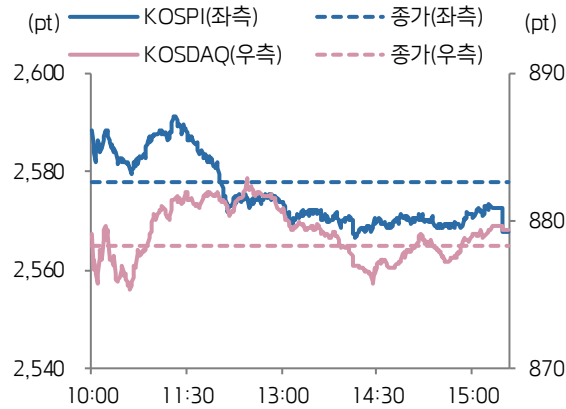
금주부터 미국은 JP 모건 금융주들을 필두로 실적시즌이 시작, (전일 LG 전자가 발표하긴 했으나) 한국은 금일 발표예정인 삼성전자 잠정실적 이후 본격적인 실적시즌에 진입할 예정. 이번 실적시즌에서 기업들도 올해 가이던스를 제시하겠지만, 실적 발표 이후 애널리스트들의 리뷰와 프리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이익 전망치 변화 및 그에 따른 증시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합리화 여부가 펀더멘털 상 분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

전일 국내 증시는 CES 기대감에 따른 네이버, 카카오 등 AI 관련주 강세에도, 금리 변동성 확대 속 반도체, 바이오 중심의 단기 재료소멸 인식에 따른 차익실현 물량 출회 등으로 혼조세 마감(코스피 -0.4%, 코스닥 +0.1%).

금일 코스피는 최근 4 거래일 하락에 따른 매수세 유입 속 뉴욕 연은의 기대인플레이션 하락, 유가 급락 등에 따른 미국 증시 강세 효과에 힘입어 반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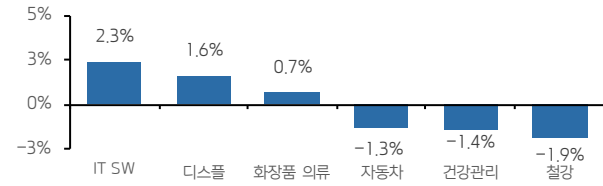
업종 측면에서는 AI, 반도체 관련주들로의 수급 집중 여부가 관전포인트가 될 것. 금일부터 CES 2024 가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6.4%)가 가정용 AI 칩 공개로 인해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미국 증시에서 AMD(+5.4%), 마이크론(+1.8%) 등 AI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연출했기 때문. 삼성전자 잠정실적도 대기하고 있는 만큼, 금일 국내 증시는 AI, 반도체 관련주 주가 변화가 전반적인 증시 방향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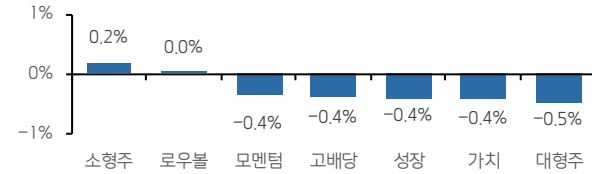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